

인도의 언어이론과 파니니

김형엽
(고려대학교)

1. 인도 시대의 언어관

기원전 2세기말경 인도의 사상가들은 이미 언어학과 관련된 학문적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었다. 이처럼 언어학에 관련된 학문적 활동들이 다른 곳이 아닌 인도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인도의 대표적 사상들인 종교인들이 성전의 내용을 보존하고자 관련된 언어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성전의 내용을 있던 그대로 보존하여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유일한 전달 수단인 언어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학문적 성향은 언어 연구를 학문적 분야의 하나로 구축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언어 이론들이 어느 시대보다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었다.

인도 사상가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조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보존하려 했던 성서란 바로 베다(Veda)를 일컫는 것으로서 내용의 대부분은 과거부터 전해온 신들의 말씀을 인도의 고유어인 산스크리트어(Sanskrit)로 표기한 내용들이었다. 당시의 표기 방식은 주로 음성적 방법에 의존하였으며, 주로 암송에 의하여 후대에 전해진 것이다. 이 방법은 인도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록보다는 반복적 학습에 바탕을 두었던 암송을 기반으로 하여 선대의 종교인들이 후대에 남겼던 예는 여러 지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인도에는 성전을 소리로만 전달하기 위하여 성서 내용을 암송해야만 했던 승려계층인 브라만이라는 특별한 계급이 있다. 그러나 성서의 방대한 양 때문에 승려들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신에게 구원을 발원하기 위해서 성서 내용에 사용된 소리들을 조금의 오차도 없이 암송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전을 집전하던 승려들은 스스로 이 내용을 외우는데 많은 공을 들

[주요어] 성전/성서, 산스크리트어, 암송, 내용, 형태, 소리/음소, 언어변화, 파니니, 문법, 규칙

였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승려들을 가르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이와 유사한 전통은 오늘 날 불교 승려들이 불경을 대하고 있는 태도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특히 불경을 암송할 때 그 내용이 글로써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기하려는 행동에서 과거의 승려들의 노력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국악의 판소리를 보더라도 내용이 대를 거듭하여 전수되는 과정에서도 암송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승려들은 암송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리표기 방식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음방식(phonetic description)을 정립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하여 후대의 승려들은 선대에 내용이 어떻게 암송되었는지를 알아내고, 똑같이 재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내용을 암송을 통하여 보존할 때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내용을 암송하는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초기의 암송 수단은 주로 내용 보존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이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암기의 효과적 방법이란 암송 형태(form)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 내용이 산문이 아니라 시의 형식으로 구성된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시가 산문보다는 분명한 형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시에 사용되는 형식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고르다면 운율(meter)이다. 운율 방식은 시가 산문보다도 쉽고 빠르게 암기될 있게 한다. 무속인들도 주문을 암송할 때도 전체 내용만을 그저 주절주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운율을 반복한다. 시나 주문은 암기할 때 글자 수를 맞추어 각 행을 일정 배열로 끊어 읽으면 암기가 훨씬 용이하게 된다. 이처럼 동일하게 갖추어진 말소리 마디를 암송 형태라고 한다. 인도의 종교인들은 성서의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암송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방대한 내용을 암기하고 보존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승려들이 성서를 내용보다는 형태적 측면으로만 보게 하는 극단적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서의 내용은 쉽사리 형태에 가려지곤 하였다. 승려들은 형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하여 한 사람의 방법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공통된 형태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결과로 형태만을 염려하여 만들어진 모임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 모임은 주로 승려 셋이나 넷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모임을 통하여 정확한 암기 방식으로서 17가지 이상의 방법들이 고안되었다. 이처럼 형태가 내용보다 중시되는 시대적 조류는 결과적으로 성서의 내용을 경시하게 하는 성향을 낳게 하였고 결국 성서의 내용이 소실

되는 일마저 일어났다.

인도인들은 형태에만 자신들의 관심을 한정시킨 나머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소(phoneme)들이 단어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소리상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산스크리트어는 산디(sandhi)라는 음운현상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즉 단어를 형성하는 음소들이 조합된 방식에 따라서 다른 음소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음소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성서 내용을 암기라는 대전제 하에 형태라는 수단에만 한정하여 보존하려는 승려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우선 산디에 대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를 어간에 부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prefix) 'in-'은 어간의 초두음이 어떤 음소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in-, im-, il-' 등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이처럼 특정 음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소들은 다른 음소들과 조합을 만들 때 어울리게 되는 다른 음소에 따라서 환경 변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인도의 승려들은 다른 환경에서 변화된 소리로 나타나는 음소들은 다시 분석하여 본래의 음가를 찾게 되었다.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한 분야인 음운론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현상이다. 소리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당 자료를 자세히 관찰하여 한 음소가 다른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찾아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변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저형을 성립시켜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기저형이란 해당 음소가 변화하기 이전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이처럼 기저형을 찾아서 별도로 성서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이런 형식을 따른 경전이 파다파타(Padapāṭha)이다.

그러나 언어는 다른 모든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변화할 수밖에 없다. 승려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발음 방법을 기초로 하여 변화해 가는 자신들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재분석하고 또한 그 내용을 반드시 다시 기술해야만 했다. 언어에서 변화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현상이 다름 아닌 방언(dialect)의 발생이었다. 방언의 발생은 사회적인 측면과 지역적인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도 하나의 언어로서 위에 언급한 현상에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파라크리트(Parakrit)가 그 많은 방언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방언은 특히 사회적 계층(브라만(Brahman), 크샤트리아(Kshatriya), 바이샤(Vaisya), 수드라(Sudra))들 사이의 격차가 만들어 낸 방언으로서 사회적 방언의 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제 일 계급과 제 이 계급에서 산스크리트어의 고유형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반하여 하위 두 계급에

서는 위에서 언급한 '파라크리트'를 방언으로서 사용하였다. 이 현상은 산스크리트어가 모국어로서 자연스럽게 후세에 전달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언어를 자신들의 후세에 전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산스크리트어의 고유형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 지침은 언어 교육에 인위적 규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규범문법(prescriptive grammar)을 탄생하도록 하였으며 이 교육 방법은 지금도 언어 교육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학 교재는 학습자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칙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법칙들은 학생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되고 있다. 대부분의 문법 교재는 바로 이와 같은 규칙들을 집대성한 모음집이었다.

여기서 언급한 규범문법은 특정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 현상(diglossia)이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에 각기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¹⁾ 사회 내부에서 특정 언어가 계층에 따라서 다른 변화를 보일 때 대개 상위 계층에서는 이런 변화를 막으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반하여 하위 계층에서는 이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상위 계층에서는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후세에게 자신들이 물려받은 언어를 그대로 전수하려는 언어 교육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만일 그 사회에 특정 종교가 존재할 때에는 종교에 종사하는 이들도 자신들이 신의 말씀으로 여겨온 내용이 변하는 것을 신에 대한 불경으로 여겨 변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런 경향들은 과거부터 발전해 온 언어를 다시 정확하게 분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석된 결과는 규범집을 만드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계급이 뚜렷한 인도에서 상위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두

1) 언어의 다원화(diglossia)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언어의 다원화는 동일한 사회 속에 여러 종류의 언어가 존재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현재 인도에는 약 200가지 이상의 다른 언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록 같은 국가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전혀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인도 정부는 전 국토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들 중 다섯이나 여섯 가지를 선택하여 표준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표준어에는 영어, 힌디어, 말레이알람어등이 속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 종교적 필요성에 국한되어 발전하였던 언어학 이론 발전을 사회적 측면으로도 범위를 확대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측면이 고려된 언어학적 방법론을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이라고 하며 대부분 인도에서 사회언어학 분야의 방법론적 발전의 기원을 찾고 있다.

드러지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인도는 규범문법을 시작한 근원지로서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규범문법에 사용된 방법들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언어 교육 및 학습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²⁾

지금까지 인도에서 볼 수 있었던 언어학 이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인도 언어학 이론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인도에는 역사의 깊이 만큼이나 언어학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들이 적지 않지만 문법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파니니(Pāṇini)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 파니니

파니니는 기원전 6세기경의 사람으로서 알려져 있으며 그가 저술한 대표적 문법서로는 아쉬타다이(Aṣṭādhyāyī)가 있다. 이 제목은 책 내용이 8 장으로 이루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 부분인 ‘Asta’는 8이란 숫자를 뜻하며 뒷 부분인 ‘dhyāyī’는 책의 부분인 각 장(章, chapter)을 가리킨다.

이 책은 저술되기 이전에 이미 구전을 중심으로 전수되었던 것으로서 이 이후에 나타날 다른 문법 관련 저서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톨카피얌(Tolkāppiyam)은 후세에 나타날 문법 저서들 중 하나인데 이것은 인도 중서부에서 사용되었던 타밀어(Tamil)의 문법 저서였다. 그리고 이 문법서는 티벳(Tibet)에서 문법적인 방법론들이 발생하고 이들이 나름대로 발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력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현재 인도에 존재하고 있는 각 학교에서도 이 저서가 여전히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인도의 언어학적 발달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종교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문법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발전 과정은 언어 이론을 단순히 종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언어 교육 분야 자체에도 이용되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적용되었다.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던 연구자들의 끊임없는 열정은 현재까지도 인도의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언어의 무분별한 다원화 현상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바탕이 되었다.

2.1. 파니니 문법의 특징

이 부분에서는 파니니 문법 규칙의 성격을 생각해 보고, 8 장에 걸친 규칙들을만 들어 가는 과정으로 언어의 작은 단위인 개별적인 소리부터 문장으로 확장해가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파니니의 저술서는 문법 저서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단어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일종의 영문법 저서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산스크리트어의 언어적 특징에 그 원인이 있다. 산스크리트어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은 하나의 문장이라도 마치 하나의 긴 단어인 양 보인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장의 형식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영어와 같은 언어를 위하여 만들어진 문법 저서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준다. 근대에 와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언어와 관련된 문법서와 파니니의 저서를 비교해 보면, 지금의 문법 저서들이 비록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위하여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어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1. 규칙의 성격

언어의 문법을 보여 주는 아쉬타다이의 구조는 규칙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각 규칙은 수트라(sūtra)고 불리며, 규칙의 구성의 특징은 두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산스크리트어의 소리를 파니니 나름대로 정리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파니니가 현대 언어학의 대표적 음성 구분 방식인 자음과 모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에서 보여주듯이 14개의 그룹 (그룹의 명칭: ṅ, k, ṅ, c, ṭ, ṇ, m, ñ, ś, ś, v, y, r, l)으로 나눈 것은 자신이 제시한 규칙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리 분류 방식은 후세에 전통적인 음성학 이론에 의한 소리 분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으로서 파니니의 문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

- | | | | | | | | |
|--------------------------|-------------|----------|---------------|-------------|----------------|-----------|---|
| (1) i. a i u | ṅ | ii. ṛ ṛ | k | iii. e o | ṅ | iv. ai au | c |
| v. h y v r | ṭ | vi. l | ṅ | | | | |
| vii. ñ m ṅ ṅ n m | viii. jh bh | ñ | viv. gh ḍh dh | ś | x. j b g ḍ d ś | | |
| xi. kh ph ch ṭh th c ṭ t | v | xii. k p | y | xiii. ś ś s | r | | |
| xiv. h | l | | | | | | |

둘째는 파니니가 소리들을 나름대로 구분하는 다른 방법으로 규칙에 직접 표기하는 것으로서 음성·음운적으로 동일한 현상에 그룹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소리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그룹으로 묶이는 소리들을 통칭하여 ‘응축 condensation’이라고 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예들은 규칙에 표현되는 소리 묶음의 일부를 보여 준다.³⁾

(2) i. 모음의 묶음에 관련된 것

‘al’ 모든 소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a는 (li)에서 a를 가리키며 l은 (lxiv)의 h를 가리킨다. 따라서 al은 a와 l의 두 소리 안에 포함되는 모든 소리를 의미한다.

‘ac’ 모든 모음을 가리킨다. a는 (li)에서의 a이고 c는 au까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는 a, i, u, e, o, ai, au와 같은 모음을 의미하게 된다.

‘ak’ a i u r̥l̥를 가리킨다. a는 (li)의 a이며 k는 l̥까지를 가리킨다.

‘ik’ i u r̥l̥를 묶어서 가리킨다. i 모음은 (li)에서 두 번째 모음인 i를 가리키며 k는 l̥를 의미한다. ‘ak’ 보다 ‘a’ 모음이 제외된 4개 소리의 모음이다.

‘en’ (liii)에 속하는 e, o의 두 모음이다.

‘ec’ (liiii)의 e에서 시작하고 (liv)의 ai, au를 포함하여 e, o, ai, au를 가리킨다.

‘aic’ (liv)에서 두 장모음을 의미한다. (ai, au)

‘at’ 단모음 a를 가리킨다. 이 경우 ‘l’는 단순히 모음에 붙은 것으로서 묶음 현상과 관련성이 없다.

ii. 모음과 자음의 묶음에 관련된 것

‘as’ a는 (li)에 있는 a이고 s는 (lx)의 d까지를 가리키기 때문에 모음과 유성 자음 모두를 포함한다.

‘am’ a는 (li)의 첫 모음이고 m은 (lvii)의 n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표식은 모음, h, 반모음, 비음 자음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yan’ ya, va, ra, la 형태의 음절 구조들을 나타낸다.

‘guṇa’ a, e, o, ar, al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vr̥ddhi’ ā, ai, au, ā, ar, āl를 포함하는 명칭이다.

‘tuk’ 단어 내부에 첨가되는 t를 가리킨다.

‘pit’ p 자체만을 가리킨다.

‘kṛt’ 특정 접미사를 가리키는데, kvip, lyap가 여기에 속한다.

‘āi’ 동사에서 ā를 접두어로 첨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1)의 소리 분류 도표에 나타난 명칭들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소리 분류를 참조하여 이해해야 한다.

다음에 제시되는 용어들은 규칙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용어들을 나열한 것이다. 각 용어들의 의미는 규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를 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일단 규칙을 대하게 되면 이들 용어들의 유무를 살펴 규칙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 (3) *hrasva* → 단음과 관련된 개념을 가리킨다.
dīrgha → 장음과 관련된 개념을 가리킨다.
saṃhitā → 지속적으로 연이어 나오는 소리 현상을 가리킨다.
pratyaya → 접미사 'suffix'를 의미한다.
pūrva → 특정 부분에 앞서 나타나는 소리들을 가리킨다. 영어의 의미로는 'preceding'이다.
para → 특정 부분에 바로 뒤에 이어지는 소리들을 가리킨다. 영어의 의미로는 'following'이다.
pada → 단어를 가리킨다.
anta → 끝 부분을 가리키며, 'padānta (pada - anta)'는 단어 끝 부분이다.
savarṇa → 동일한 위치나 방법을 소유하고 있는 소리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n, m, ŋ이나 접두어 'in-'이 'possible' 앞에서 'impossible'로 전환되는 것 등이다.
eka → 숫자 1(one)을 가리킨다.
ca → 영어 접속사 중에서 'and'를 가리킨다.

이처럼 파니니가 사용한 용어들은 규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며, 이들 용어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각 규칙들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로써 (4)에 제시된 규칙들을 설명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여기에 나오는 규칙들은 수트라의 일부인데 6.1.71이 가리키는 바는 8장 중에서 6장에 속한 것으로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에 적용되는 71번째의 수트라를 의미한다.

- (4) 6.1.71 *hrasvasya piti kṛti tuk*
 6.1.72 *saṃhitāyām*
 6.1.77 *iko yaṇ aci*

첫째 수트라에서 'hrasva' ((3)을 참조하시오)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음, 특히 단모음과 연관을 맺는 것으로서 'hrasvasya'에 있는 'ya'의 단모음인 'a'를 가리킨다. 'piti'는

'p' 자체를 가리키며 'krti'는 (2)에서처럼 접미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규칙 형태에서 두 가지의 접미사 중에서 'ya'를 포함하는 접미사인 'lyap'를 의미한다. 'tuk'는 't'를 가리키는데, 이들 정보들을 모두 합쳐 보면 'p'로 표기되는 'lyap'의 'ya' 접미사는 어근에 붙어서 나타날 때 바로 앞에 't'를 수반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단어에 적용시켜 보면 'prakr-ya'에 't'를 형태 경계 표시 부분에 첨가하여 'prakṛtya'로 표기된다.

두 번째 규칙은 어떤 소리 현상이든지 일단 중간에 경계 표시 없이 소리들이 늘어섬으로써 발화가 되는 음운적 환경을 가리킨다. 수트라 중에는 6.1.71처럼 경계 표시를 적용 범위로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수트라들은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어근이나 어미 내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다. 만일 이 규칙이 다른 규칙 이전에 주어지게 되면 이후의 현상들은 항상 경계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조건이 성립된다. 주로 어근과 같은 단위 내부에 특정 소리가 다른 소리로 전환되는 경우도 포함시키려는 전제 조건으로 제시되는 규칙이라고 알아두면 편리하다. 이 규칙에 주어진 용어 중 'samhitā'는 (3)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인 발화 (continuous speech)를 의미한다.

세 번째 규칙은 두 번째 수트라 6.1.72의 조건 하에서 'iko'의 일부분인 'ik'와 'yaṅ'이 가리키는 소리들 사이에 상호 교환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ik'에 해당하는 i, u, ṛ, ḷ과 'yaṅ'에 해당하는 ya, va, ra, la의 반모음들이 특정 환경에서 교환되는 것이 이 규칙의 내용이다. 이 규칙에서 'aci'는 (2)에 제시된 'ac'를 의미하는데 산스크리트의 모음들이 모두 이 표시에 속한다. 즉 i, u, ṛ, ḷ이 각각 y, v, r, l로 바뀌는데 이들 음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음이 바로 뒤에 있어야 한다. 바로 이들 모음들이 'ik'와 'yaṅ'에 해당하는 두 소리 묶음이 상호 교환을 위한 음운론적 환경이 된다. 따라서 이 규칙을 도식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5) \quad \{i, u, \dot{r}, \dot{l}\} \rightarrow \{y, v, r, l\} / \# \text{_____ vowel} \\ = \# \{i, u, \dot{r}, \dot{l}\} \rightarrow \{y, v, r, l\} \text{ vowel}$$

위 규칙 모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수용되고 있는 생성음운론에서의 음운 규칙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파니니는 자신의 문법에서 생성음운론과 같은 음운규칙 방식과 유사한 방

법으로서 세 개의 수트라를 별도로 규정하였고, 이들 수트라들을 기본 규칙 (metarule)으로 정하여 음운 현상이 이들 방법을 항상 따르도록 적용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와 같은 규칙은 (2ii)에서 *guṇa*와 *vṛddhi*를 정의하기 위하여 보여 준 수트라 1.1.1 *vṛddhir ād aic*와 1.1.2 *ad eṅ guṇah*의 규칙들과 유사한 것이다. 그 이유는 1.1.1과 1.1.2의 수트라들은 규칙이 적용되는데 필요한 두 개의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수트라를 기본으로 하여 규칙이 적용되는 방식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 수트라를 통하여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의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니니가 이 수트라와 같이 규칙의 적용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음운 규칙과 같은 적용 방식을 정의하는데 세 가지의 기본 규칙을 (6)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파니니 문법과 현대 음운론 규칙 모형의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 (6) 수트라 1.1.49 *ṣaṣṭhī sthāneyogā*
 수트라 1.1.66 *tasminniti niradiṣṭe pūrvasya*
 수트라 1.1.67 *tasmād ity uttarasya*

첫 번째 수트라는 특정 규칙의 변화 현상이 적용되는 위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규칙을 간단한 표현으로 바꾼다면 'in place of' (*sthāneyogā*)가 된다. 이 위치에서 음운론적 소리 전환 현상의 진행 과정은 수트라 1.1.45 *ig yaṇah samprasāraṇam*으로 설명하고 있다. 1.1.45의 핵심 내용은 'ik yaṇ' (= *ig yaṇah*)에서 (2ii)에 제시된 'yaṇ'에 포함되는 *y, v, r, l*의 반모음들이 (2i)에 제시된 *ik*에 포함되는 모음 *i, u, r, ṛ*들로 전환되는 것을 가리키며, 수트라 내에서 *samprasāraṇam* (= replacement)이 바로 이와 같은 음운 교환 현상을 지칭하고 있다. 만일 이 규칙 내용을 현대 음운론 규칙 방식에 적용시킨다면 (5)에서 밑줄 친 부분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수트라는 'in place of'의 바로 다음에 오는 환경 요소로서 음운 규칙을 제안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 규칙에 의하여 우리는 특정 음운 현상이 어떤 환경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지를 알 수 있으며, 규칙 적용 범위를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pūrvasya*(3)의 *pūrva*는 특정 음운 현상의 발생 위치가 'in place of'의 다음에 오는 요소 앞이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 음운 규칙에 적용시켜

보면, (5)의 경우에는 ‘vowel’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ik’와 ‘yaṁ’의 교환은 모음 앞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트라 ‘in place of’의 앞에 존재하는 음운 규칙 적용 조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적용하려는 음운 규칙은 반드시 이 요소를 앞에 두고 있어야 함을 가리키는 내용이다. 이 규칙 내용에서 uttarasya는 ‘해당 요소 다음에 오는 위치에 규칙을 적용한다’ (something applies to what follows)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5)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보면 경계 표시에 해당하는 ‘#’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적용 범위와 범위 방식을 정의하는 수트라들을 토대로 하여 현대의 음운론 방법대로 규칙을 다시 정리하여 보면 (7)처럼 된다. 수트라 1.1.67에 의하여 $X[a \rightarrow b]$ 의 관계가 정해지고, 수트라 1.1.66으로 $[a \rightarrow b]Y$ 의 관계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 \rightarrow b]$ 는 ‘in place of’에서 수트라 1.1.45의 samprasāraṇam에 의하여 발생하는 a, b 음운 변이 현상을 표시한다.

(7) $X [a \rightarrow b] Y$

파니니가 제안하는 수트라의 또 다른 특징은 현대 음운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간결함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미 (2)에서 보였듯이 파니니는 모든 소리를 개별적으로 모두 언급하지 않고 ‘al, ac, ak, ik’과 같이 대표적인 표식을 이용하여 여러 소리들을 이들 표식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설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소리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파니니는 수트라 자체도 간결함을 가장 중시하여 설정하였는데 (4)의 수트라 6.1.77을 보면 i, u, ṛ, ḷ의 모음과 y, v, r, l의 반모음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각각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 소리들의 연관성을 하나의 규칙으로 묶음으로써 하나의 규칙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월등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현대 음운론에서도 이 방식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만일 p, t, k의 소리들이 b, d, g로 전환된다면 일일이 별도 규칙을 설정하기보다는 세 소리를 묶을 수 있는 특징인 ‘[voice]’를 이용하여 하나의 규칙으로서 세 소리가 서로 연관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설명의 간결함을 반영하는 한편 인간의 뇌가 효율적으로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을 규칙 표기로서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파니니도 비록 고대시대에 자신의 문법을 수립

하였지만 규칙 설정 방법을 보면 현대 언어학 이론과 상호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8) I → y / _____ vowel
 u → v / _____ vowel ⇒ {i, u, r, l} → {y, v, r, l} / _____ vowel
 ɾ → r / _____ vowel
 ɻ → ɻ / _____ vowel

이처럼 파니니의 기본 규칙(metarule)은 규칙에 필요한 용어들과 규칙에 사용된 단어 표기 방식으로 적용 범위 및 적용 방식을 정해지며 기본 규칙에 의하여 (4)의 6.1.77에 나타나는 음운 변화 현상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 줄 수 있다. 이것은 파니니의 문법이 단지 과거의 방식으로서 현재의 언어학 이론 방식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현대 언어학 방법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금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1.2. 단어 이상 단위와 수트라

단어 이상의 단위인 구와 절 등과 같은 단위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 구조는 단어 내부의 변화를 가리키는 이전의 수트라와 형성된 모습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수트라에서는 구 이상의 단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소들과 이들이 분포를 통하여 소유할 수 있는 문법적인 특성을 연관지음으로써 상위 단위로의 설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장의 구조에서만 알 수 있는 주어나 목적어 같은 개념이나 능동과 수동과 같은 개념을 규칙 안에 표현함으로써 해당 수트라가 구 이상의 단위와 연관되어 있음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9) kṛtyānān kartari vā (수트라 2.3.71)

이 규칙은 접사인 kṛtya의 주격형은 명사 변화형의 6 번째 (saṣṭhī)인 소유격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명사와 관련된 어미 변화는 크게 7가지로 나뉘며 kṛtya 다음에 나오는 'ān'은 소유격을 가리키는 6 단계에 속하는 접미사이지만 주격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규칙에서 vā는 우선적으로나 선택에 의하여 (preferably, optionall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 형태들은 파니니의 문법에 두 가지 특징을 부여한다. 첫째는 문법

내용 자체를 상당히 간결하게 해준다. 이런 형태는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문법 저서에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해당 언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들을 규칙으로 간결하게 정형화시켜 보는 이로 하여금 언어 습득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규칙 형태로 표기함으로써 설명을 필요 이상으로 나열하지 않고도 읽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경제성이 있다. 만일 산스크리트어 문법 안에 (9)과 같은 규칙이 없다면 이 언어를 배우는 사람은 한가지 현상을 배우고자 많은 문헌을 스스로 관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9) 규칙으로 학습자들은 이 규칙을 여러 언어 환경에 적용시켜 좀 더 편리하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파니니의 문법에서 또 하나 특기할 사항은 동사를 문(sentence)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학적인 방법론(주로 통사론에서 하는 방법을 가리킴)의 기본 구조이다. 문을 주부와 술부로 구분하는데 동사가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술부에서 동사와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를 토대로 문장 성격을 5가지로 설정한다. 파니니는 동사와 다른 문법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정해 가는 방법을 'kāraka'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설정하였다. 'kārakas'는 구문론 상의 요소(syntactic element)요소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6가지 종류를 구분지어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은 Filmore가 주장하는 격(case)에 대한 특성들과 거의 일치한다.

- | | |
|------------------|------------------------------|
| (10) i. apādāna: | 출발점 |
| ii. karaṇa: | 행동의 완성 |
| iii. adhikaraṇa: | 가는 방향 |
| iv. kartr: | 행동에 참여하는 독립체 |
| v. karman: | 행동 독립체의 우선적인 도착점 (직접목적어에 해당) |
| vi. sampradāna: | 행동 독립체의 간접 도착점 (간접목적어 해당) |

다음에 주어진 예는 심층구조(underlying representation)에서 행동주(agent)로 표시된 것이 표층구조(surface representation)에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 본래 주어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수동형에서의 주어형을 가리키며, 세 번째 경우는 동사가 명사로 파생될 때 주어가 동사의 원래 주어로서 의미상의 주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 (11) karo-ti kumbhā-n 'he makes pots'
 make-he pots-ACC 그는 단지를 만든다.

kumbhāh kriyate 'pots are made'
 pots be-made 단지가 제조된다.

kumbhākarah 'potter'
 pot maker 단지 제조자

2.1.3. 파니니 문법의 문제

지금까지 파니니가 저술했던 문법서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파니니의 문법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그의 문법서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문법에 관련된 학자들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점이다. 부연하자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 문법가를 위한 문법 저서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문법서가 극도의 간결성을 추구한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간결성이란 표현을 극도로 제한된 용어에 국한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예는 수트라라는 규칙 표기 방법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문제점은 후에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그런 이유로 많은 후세 학자들이 파니니의 문법을 쉽게 해설하기 위하여 많은 주석서를 남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 파타냐리(Patañjali)의 마하바샤(Mahbhāṣya)는 '위대한 주석서'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현재까지 인도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저서를 근간으로 언어학적 발전의 기틀을 잡았던 그리스의 언어학계에서는 이 문법서를 모방하였으며, 더 나아가 주석서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스의 언어학자들 중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디오니시우스 시락스(Dionysius Thrax)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저술할 문법서인 'Téchnē'에서 파니니 문법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보완한 점들을 잘 보여 주었다.

둘째는 파니니의 문법서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는 산스크리트어이지만 사실 이 문법서로는 산스크리트어의 모든 면을 다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법서가 만들어질 때 자료로서 사용된 언어가 산스크리트어 한 언어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 문법서의 법칙들이 과연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다양한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문법서로서 보편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파니니의 문법은 언어학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다. 비록 이 문법이 일반 언어를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언어학사에서는 파니니의 문법서야말로 후대의 대표적 언어 이론인 기술언어학(descriptive linguistics)과 19세기에 역사언어학(historical linguistics)이 태동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⁴⁾

참고문헌

- 김형엽. 『인간과 언어』. 서울: 한울, 2001.
 이지수. 『산스크리트 입문』. 서울: 이문, 1994.
 Bloomfield, Leonard. *Language*. New York: Holt, 1933.
 Cardona, George. *Pāṇini: His Work and its Tradition*. Motilal Banarsidass: India, 1997.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Hague: Mouton, 1965.
 Chomsky, N and M. Halle. *Sound Pattern of English*. Harper & Row, 1968.
 Itkonen, Esa. *Universal History of Linguistics*. John Benjamins: Amsterdam, 1991.
 Kiparsky, P and J. F. Staal. Syntactic and Semantic relations in Pāṇini. *Foundation of Language*, v.5. 1969
 Lepschy, Giulio. *History of Linguistics I, II*. eds. Longman: New York, 1994.
 van Noonan, B. A. Pāṇini's Replacement Technique and the Active finite verb. *Language*, v.43: 883-902. 1967.
 Perry, E. D. *A Sanskrit Primer*. Motilal Banarsidass: India, 1997.
 Stall, J. F. A Method of Linguistic Description: the order of consonants according to Pāṇini. *Language* v.38: 1-10. 1962.
 Staal, J. F. Context-sensitive rules in Pāṇini. *Foundation of Language*. v.1: 63-72. 1965.

4) 구조주의 언어학의 위대한 학자였던 블룸필드(Bloomfield)는 이 문법 저서를 일컬어 ‘인간 지성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금자탑’(one of the greatest monument of human intelligence)이라고 하였다.

[Abstract]

Linguistic Theory in India and Pāṇini

Hyoung-youb Kim
(Korea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the world the scholars in India could be regarded as the representative linguists, who had provided the cornerstone of the academic development at linguistics. Without looking into the contents of Indian linguistic theories devised and developed in the past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to account for the origin of descriptive linguistics and historical linguistics. These linguistics trends became full-fledged in 19 and 20 century and are still accepted by a lot of researchers in order to analyze newly revealed languages and train students only coming up the toddling level of linguistic studies.

In this paper I will show how far the influence of Indian linguistics has colored the flow of linguistic growth historically. Especially through the analysis of Pāṇini grammar I will prove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an linguistic theory and the generative grammar - it is the most active theory at present. The methods that Pāṇini applied to constitute the rules like *sūtra* include lots of information, that also could be discovered at the rules postulated in the generative grammar. One of the common features found at both linguistic theories is the simplicity of rule representation. At the generative grammar a rule has to be established without any redundancy. When certain number of sounds like p, b, m show the same phonological change relevant to lips (labial in linguistic term) different rules need not to be given for each sound separately. It is better to find a way of putting the sounds together in a rule with grouping the 3 sounds with the shared phonetic feature 'labial'. In Pāṇini grammar the form of a rule was decided based on the simplicity, too. For example, *sūtra* 6.1.77 shows the phonological connection between the vowels i, u ṛ ḷ and the semi-vowels y, v, r, l. However, it does not require to postulate 4 individual rules respectively. Instead a rule in which the vowels and the semi-vowels are involved is suggested, and linguistically the rule make it clear that the more simpler the rules will be the better they can reflect the efficiency of human language acquisition.

Although the systems introduced at Pāṇini grammar have some sense of distance from the language education itself we cannot deny the fact that the grammar formulates the a turning point of linguistic development. It is essential for us to think over the grammar from the view point of the modern linguistic theories to understand their root and trunk more thoroughly. It will also help us to predict in which way linguistic tendency will proceed to in future.